

# 羲교육 허브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

### 422억 투입·연면적 7천321㎡ 규모 조성 전국 최초 '1박2일 체류형 박물관' 모델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 사업 추진 7년 만에 문을 열었다. 전남도는 5일 나주 공산면 일원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주요 내빈, 의병 후손과 단체,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박물관 야외 '바람의 테라스'에서 열린 행사는 경과보고, 홍보영상 관람, 기념사, 고광순의

병장의 '불원복(不遠復)' 태극기 기탁식, 유공자 표창과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가까이 함께 나누고 극복해 온 전남과 광주 고유의 '대동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로 치러졌다. 전남도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앞장섰던 남도 의병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했다. 총사업비 422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7천321㎡ 규모로 조성된 박물관 외벽에는 3만3천여개의 '키네틱 파사드' 패널이 설치됐다. 전장을 내달

리던 3만3천명 남도의병의 뜨거운 함성을 웅장한 금속음으로 재현했다. 전시실에는 도민의 성원으로 수집된 3천85점의 유물과 함께, 독립기념관에서 고향으로 40년 만에 귀향한 '불원복' 태극기가 전시돼 감동을 더하고 있다. 전남도는 박물관을 전국 최초 1박2일 '뮤지엄 스테이'를 결합한 '체류형 박물관' 모델, 미래 세대에 호국 정신을 전수하는 대한민국 대표 '의(義) 교육 허브',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열린 문화 공간 등 3대 중점 방향에 맞춰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장 어두웠던 시대, 불굴의 용기로 나라를 지킨 남도 의병의 숭고한 희생과 대동정신은 마침내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특별자치'의 가장 든든한 역사적 뿌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7년의 간절한 염원 끝에 도민 품에 안긴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남도 의병 정신을 심어주는 대한민국 대표 '의(義) 교육 허브'이자 도민 모두의 자긍심을 높이는 가슴 뜨거운 명소가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기자



### 전남도, 가축 질병·산불 예방 총력 긴급대책회의 방역 강화·진화대책 논의

전남도는 지난 4일 최근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선제 대응을 위한 도·시·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회의는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계 실·국장과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와 봄철 산불 재난에 대한 초동 진화 대책 등 분야별로 심도있게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가축 질병(AI·ASF) 발생 유형과 대응 상황 ▲산불 발생 유형과 대응 상황 ▲추후 시·군별 가축 질병예방과 봄철 산불 재난 예방과 대응 방안 점검 등이다. 특히 가축 질병의 경우 지난해 동절기부터 AI 10건·ASF 3건 등 총 13건이 발생, 인접 9개 시·군을 집중 점검했다. 산불은 올해 도내 총 15건이 발생한 가운데 기상청의 3-4월 건조한 날씨 예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시·군의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황기연 부지사는 "가축 질병과 산불 재난은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빈틈없는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시원기자



"발 건강지압 배워요" 저속노화 실천을 위한 일상 속 걷기 교육의 일환인 '백세건강 걷음학교'가 5일 오전 광주 서구청 등불홀에서 열린 참여자들이 건강지압법 및 발마사지 교육을 받고 있다. '백세건강 걷음학교'는 서구 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슬로우조깅, 바르게걷기 기본교육 및 심화 과정이 포함된 걷기이론과 현장 실습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조영권기자

## 광주시, 노후경유차 3천200대 조기폐차 지원

### 9일부터 접수...4·5등급 차량·건설기계 배출가스 5등급車 올해까지 한시지원

광주시가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오는 9일부터 사업비 67억원을 투입, 노후 경유차 3천20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운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굴삭기)다. 배출가스 등급은 콜센터(1838-7435)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자동차배출가스 중

합전산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이며, 굴삭기와 지게차는 2004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건설기계 대상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에 따라 올해까지만 조기폐차 보조금이 한시 지원된다. 계절관리 기간 운행 제한으로 적발된 5등급 차량은 오는 9월30일까지 조기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자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접수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유지 ▲자동차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 판정 ▲조기 폐차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차량 상태 점검 때 정상 작동 판정된 차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량 등급과 중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등급은 총 중량 3.5t 미만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최대 4천만원, 4등급은 총 중량 3.5t 미만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1억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2천만원이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4월 초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전자고지하거나 광주시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변은진기자

### 봄나들이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 광주시, 1회용 식기 등 20건 대상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5일 "봄철 나들이, 등산, 운동 등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위생용품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광주지역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소와 대형마트, 편의점, 생활용품 판매점 등에서 유통 중인 봄나들이 관련 위생용품(1회용 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컵 등) 20건이다. 검사 항목은 중금속(납, 비소 등), 유해화학물질(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이산화황, 형광증백제 등) 등이다. 검사 결과, 기준·규격을 초과한 위생용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자치구 등에 긴급 통보해 행정처분과 압류·폐기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화장지 등 위생용품 167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검사 대상 제품 전체 적합 판정을 내렸다.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봄철 위생용품 수요 증가에 맞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 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속 지원 생활안정자금 1인당 100만원

전남도가 전세사기 피해 도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이는 전남도가 전역 도비로 지원하고 전남 개발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남주거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을 총 1억5천만원(150명) 규모로 지원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도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생애 1회 지원하며,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 안정과 일상회복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피해 주택이 전남에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다. 전남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동부지역본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전남도주거복지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전남도주거복지센터 061-282-8424) /김재정기자

광주 안의 유일한

## 친환경 수목장

☑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전문 이장
☑ 가족구성 가능	☑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 상담: 062-449-4446